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733
------	-----

발의년월일 : 2009년 1월 9일

발 의 자 : 양창호 의원 외 10명

1. 주 문

- 2007년 12월 31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소득공제대상에 학교급식비, 학교 교과서 구입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이 포함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납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교육서비스업의 카드수수료율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해당 업체들의 카드납부를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제안이유

- 세법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소득공제대상에 학교급식비, 학교 교과서 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이 포함되어 학부모들의 교육관련 카드납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업종 간의 수수료율 책정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수수료 때문에 카드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고율의 카드수수료율 때문에 학교급식비 등에 대해서 학부모 및 학생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현금영수증을 수령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각급 학교는 교육비의 카드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학원비 등 사교육비의 투명한 노출과 서민들의 학교 급식비 등의 카드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할 것을 촉구함.

3. 이 송 처

- 기획재정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다음 페이지에 계속)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인하 촉구 건의문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 10여 년간 약 10배 가까이 급증하여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로 수수료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의 수익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신용카드업자들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동종업체 간에도 매출액이나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화하고 있으며, 특히 업종별 수수료 부과율에 있어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학원비 등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타 업종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은 일반가맹점과 영세가맹점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는 각각 최저, 중간, 최고라는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교육서비스업 중 일반가맹점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 비율을 살펴보면, 롯데카드 3.05%, BC카드 3.24%, 삼성카드 3.30%, 현대카드 3.00%, 국민카드 3.00%, 신한카드 3.19%, 외환카드 3.29%, 우리카드 3.24%로 최저 3.05%에서 최고 3.29%까지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일반가맹점의 평균을 살펴보면, 롯데카드 2.70%, 삼성카드 2.65%, 현대카드 3.00%이고, 운수업의 경우에는 롯데카드 3.00%, 삼성카드 2.65%, 현대카드 2.50%이다. 또한 통신업의 경우에는 롯데카드 2.70%, 삼성카드 2.65%, 현대카드 2.50%이고,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는 롯데카드 2.70%, 삼성카드 2.70%, 현대카드 2.80%이다.

이와 같이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카드수수료율은 교육서비스업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카드수수료율이 교육서비스업에 비해 높게 책정된 업종은 유흥 및 사치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 정도에 불과하다.

더욱이 2007년 12월 31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학교급식비, 학교 교과서 구입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이 포함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카드사용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고율의 카드수수료율 때문에 학교급식비 등에 대해서 학부모 및 학생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현금영수증을 수령해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카드수수료율로 인해 각급 학교는 교육비의 카드납부를 준비하지도 않고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비, 급식비 등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납부가 서민들이 주로 소액을 결제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유흥 및 사치업이나 부동산 및 임대업과 같이 고액을 결제하는 비용과 비슷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은 카드납부를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의 투명한 노출과 서민들의 학교 급식비 카드이용

등을 권장하기 위해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2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참고자료

“커피값 3000원도 되는데 등록금은 왜 카드 안 되나” (중앙일보 1월 29일자 사회면)

#1 주부 손영미(50·서울 면목동)씨는 다음 달 초 내야 할 대학생 자녀들의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다. 공대에 다니는 아들의 등록금으로 470만원,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딸의 등록금으로 450만원 등 모두 920만원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한다. 손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월급만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형편에 등록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는 정말 힘들다”며 “동네 갈비집도 카드 할부가 되는데 한 학기에 4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내라는 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 디자이너로 일하며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에 다니는 이진호(28)씨는 매달 월급에서 몇 십만원씩 떼어 ‘등록금 저축’을 한다. 한 학기에 4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씨는 “시간을 쪼개고, 월급을 아껴 공부하는 직장인들에게 대학원 학비를 일시불 현금으로만 내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이 대학원을 졸업하는 박자연(28·여·회사원)씨는 박사 과정 진학을 미루기로 했다. 매년 복잡한 절차를 밟아 연 7.3%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이를 갚는 과정이 부담스러워서다. 박씨는 “일단은 돈을 모아야 박사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3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휴학 중인 백재영(24)씨는 요즘 아르바이트에 매달려 있다. 3월 복학을 앞두고 등록금 마련을 위해 과외뿐 아니라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한 금융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아버지의 월급이론 등록금 납부가 거의 불가능해 스스로 벌어서 등록금을 대려 한다. 하지만 344만6000원에 이르는 등록금은 벅차다. 지금까지 200만원 정도를 모았다. 백씨는 “다른 상품을 구입할 때처럼 6개월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한 뒤 돈을 나눠 갚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절차도 복잡하고 이자도 높은 편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로 3000원짜리 커피를 사 마시고, 택시도 타며,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내는 세상이다. 그러나 유독 대학 등록금만은 카드가 통하지 않는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내야 한다. 상당수 대학들이 3%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효과가 있어 수수료 부담에는 반대한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전국 396개 대학(전문대 이상) 중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곳은 60개 대학(15%)에 불과했다. 이 중 4년제 일반 대학은 전북대를 포함한 15곳(3.8%)에 그쳤다.

한규훈 숙명여대 홍보실장(홍보광고학과 교수)은 “지난해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추진하다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카드사와의 협상이 결렬됐다”며 “당분간 등록금 카드 납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해 대학 등록금을 700만원으로 상정할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1만원(3%)의 카드 수수료가 발생한다. 서울 소재 대학들은 연간 200억~600억원을 등록금 수입으로 잡고 있다. 대학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면 12억~36억원의 손실이 생기는 셈이다. 신한카드 이재영 브랜드전략팀 과장은 “수수료를 최저 수준으로 낮춘다 해도 1.5%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대학들이 수수

료 전액 면제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 미국선 카드 납부 보편화=미국에서는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미 컬럼비아대 치과대학원에 유학 중인 조영석(27)씨는 “신용카드 납부는 가능하지만 학생이 몇 십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UCLA대 마사 러브웰 재무담당은 본지에 보낸 e-메일에서 “현재 학생들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학교가 수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 박물관관리학과 학생 쉬지아윈(22·여)은 “푸단대 재학생은 모두 등록금 납입용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있으며, 학생 수수료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 학교-은행-카드사 간 협약 필요=전문가들은 대학과 은행, 카드사가 파트너십을 맺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전북대 모델’을 차선택으로 꼽는다. 전북대는 2003년부터 주거래 은행인 전북은행과 등록금 납부 독점 계약을 하는 대신 신용카드 3개월 무이자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결제 수수료와 할부 이자는 은행이 부담한다. 전북은행 서형섭 카드사업부 차장은 “주거래 은행인 대학과 학생들에 대한 장기 고객 확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신용카드 납부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성서대의 경우 카드 결제 수수료와 할부 이자까지도 학교에서 내준다. 이강동 한국성서대 홍보 담당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학부모들의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학교에서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택·김기환·이승호 기자

.....

(다음 페이지에 계속)